

주간기도정보

2024. 9. 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와 원리 바탕으로 복음 전해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기독교군종교구 목회아카데미’ 개최



‘선교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군부대에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은 장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 현역 군종목사·군선교사가 청년 장병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원리 확립을 돕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가 27일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에서 ‘기독교군종교구 목회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선교신학회가 한국교회 군선교 부흥을 위해 현역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아카데미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회 복음 설교세미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 60여 명의 군선교 목사와 선교사가 참석했다. 세미나에 선 군선교 전문가들은 “청년 장병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말씀”이라며 “복음을 전할 때 우선순위는 성경적 가치와 원리”라고 입을 모았다.

강사로 나선 군선교신학회장 곽요셉(예수소망교회) 목사는 군선교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달자로서 명확한 역할을 주문했다. 곽 목사는 “목회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소명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면서 “기독교 십자가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자로 나선 김선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해석이 제1원리가 돼야 한다”며 “창조 사건은 언어 사건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이론 8단계를 소개하면서 군선교 복음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에릭슨이 설명한 이론을 인용해 군선교 대상인 장병들의 나이가 5단계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5단계에 선 이들은 사회적 물리적 전쟁터에 있다”면서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회적 전쟁터이고 군대라는 물리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빗대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군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국군 장병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 산파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지 신뢰 보호 인내로써 이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에베소서 6:19)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이사야 55:1,3)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는 50만여 명의 국군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답을 찾는 목마른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와 영원한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모든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로 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주의 청년들을 통해 온 천하에 복음이 흘러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도와주리라”

탈북민의 UN난민 지위 보장해야...중국 정부에 ‘강제복송 중단’ 촉구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인권문제도 심각



탈북민강제복송반대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6일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강제복송 범죄에 대해 사죄와 강제복송 중단,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 존중과 UN난민 지위를 보장,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데일리NK에 따르면, 한국으로 탈출하려고 내몽골 자치구 국경 쪽으로 향하던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매체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복송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입국했지만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탈북민이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심사 없이 모두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국제관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면서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한국행을 시도하는 중국 내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땅으로 넘어왔지만,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으로 인해 이들에게 중국 땅은 북한보다 더한 감옥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합은 지난 7월 30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이지만, 중국 땅에서 진행되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탈북여성들은 소, 돼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게 된다. 이렇듯 결혼이성 착취, 노동착취를 당하며 중국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합은 끝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복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리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9-10)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19,22)

하나님,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자국 내 탈북민을 보호해야 할 규정을 벗어나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권고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인신매매, 강제복송 등 수많은 위협에 놓인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지켜 붙들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숨죽인 이들의 눈물에 신원하여 주십시오. 사회주의로 연계되어 서로에 대한 불의를 눈감아 주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두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구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시고 찬란한 천국을 소망 삼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코로나 이후 자발적 학교예배...‘스쿨처치’ 속도낸다

코로나로 끊어진 학교 복음화 전국적 꿈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학교 복음화 기세가 거세지고 있다. 학교 복음화 운동 ‘더웨이브’ 집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세대가 학교 복음화를 잇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경기도 수원 수원고 인근에서 만난 김호영(18) 군은 지난해 9월에 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김 군이 2명의 학생과 함께 시작한 예배는 현재 매주 30-40명이 출석하는 예배로 성장했다. 수원고 예배가 자리 잡는데 김 군의 노력과 기도를 빼놓을 수 없었다. 한 명의 학생이 쏠아올린 예배의 열정이 값진 열매를 맺은 것이다. 김 군은 예배

드릴 공간을 허락받기 위해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사비로 마련했다.

그의 노력은 예배에 갈급함을 느끼는 학생들의 갈증을 해소했다. 장하준(18) 군은 수원고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다. 장 군은 “멀리 있는 교회를 다녀 함께 신앙교류를 할 친구가 없었다”며 “그러던 중 학교에서 예배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예배 찬양 인도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예배는 수요일 점심시간에 열린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 중 절반 가까운 15명은 신앙이 없는 학생이다. 김지호(18) 군은 “간식 먹고 친구들이랑 편하게 얘기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예배를 참석하며 ‘가랑비 옷 젖듯’ 신앙을 갖게 됐다. 김 군은 “예배에서 ‘기도’를 주제로 나눔을 했던 날이었다. 그날 밤 고민에 대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기도한 뒤로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고 그 후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학교 내 예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전파가 되는 동시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주일 교회 예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수요일 학교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고 고백한 맹재민(18) 군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 살던 ‘탕자’였다. 친구의 학교 예배 권유를 줄곧 거절하던 맹 군은 우연한 계기로 찬양 ‘꽃뿔도’를 듣게 됐다. 그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이 정말 많이 났다. 신기한 경험이었다”며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됐다”고 했다.

중·고등학교에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건 비단 수원고만의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원고를 비롯해 일반 고에서도 잇따라 주요 지역에 교내 예배 모임이 생기면서 학원복음화운동이 확산되는 기류다. 29일 학원선교단체 ‘더 웨이브 학교기도불씨운동’ 통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예배 모임이 활동 중이다. 기존 신자 학생 외에 비신자 학생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 이천 이현고는 올 초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예배 모임이 생겼다. 학생들이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영흥도의 유일한 중·고등학교인 영흥중·고등학교에도 비슷한 시기 예배 모임이 꾸러졌다. 10명 안팎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7명 정도는 비신자 학생이다.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 대표 최새롬 목사는 학교 예배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를 다니던 학생 중심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목사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학교 복음화는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지할 청소년 사역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에베소서 3:6-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린도전서 4:17)

하나님,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학교 복음화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다음세대를 세우셔서 부흥의 불씨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사 이 소식을 들은 청소년들이 일어나 기도불씨운동이 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기사랑으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 삼아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와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세대를 세우사 학교 복음화에 힘을 더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다음세대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